



고교 미술교사 제주어 살리기 그림전 만화가 고용완 교사 8월 2~8일 학생문화원

제주 민속과 자연을 제주어가 있는 그림에 담아낸 전시가 열린다. 제주중앙여고에 근무하는 고용완(사진) 미술교사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펼치는 '제주어 그림전'이다.

제주만화작가회 회장으로 있는 고용완 교사는 10년 넘게 제주어 교육 자료 제작에 참여하며 삽화를 맡아왔다. 이를 통해 제주어 콘텐츠 개발을 고민했고 그림과 접목시킨 '신풍속화'를 떠올리게 됐다.

4년의 준비를 거쳐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 고 교사는 A4용지 이내의 작품 10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



이와 청소년은 물론 제주어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도 제주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그림에 제주어 활용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제주어가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지고 표준어에 밀려 천대 아닌 천대를 받고 있는 때에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작은 노력의 하나”라며 “앞으로 제주어 속담, 생활언어, 농사언어, 사라진 제주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주어 그림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개막 행사는 8월 2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양전형·강봉수 시인의 제주어 시낭송, 김문영씨가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다.

제주학생들 창의력 챔피언대회 최우수

제주 학생들이 초·중·고 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휩쓸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근수)은 제주 학생들이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초·중·고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 초등학교 부문에서는 Great-잇골 팀(신제주조, 지도교사 문재호), 중학교 부문에서는 안파고 팀(제주중앙중, 지도교사 양성철), 고등학교 부문에서는 색연필 팀(서귀포산업과학고, 지도교사 손인아)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제주 지역예선을 거쳐 지난 7월 25~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실시된 본대회에서 최우수상 패거리를 이뤘다.

JDC 독거노인 후서기 물품 지원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달 31일 본사에서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종래, 제주시노인지원센터),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이은경, 서귀포시노인지원센터)와 '도내 독거노인 후서기 물품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는 두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독거노인 1300가구에 후서기 대비 물품 등 총 54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학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서는 사라봉 일대 환경정화활동, 돌봄 어르신 생신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흥초 고려대 사회봉사단과 비전 캠프

시흥초등학교(교장 강지선)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3~6학년생을 대상으로 2019년 하계 영어·과학 비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체력 중심의 영어·과학·멘토링 활동이 있으며, 영어·과학·창의 수업은 저학년과 고학년 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번 멘토링 활동은 '제주'를 주제로 한 제주의 다양성에 대한 활동 등으로 구성돼 진행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 유적지 순례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회장 오정희)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서부지역에서 4·3유적지 순례를 실시했다. 이날 순례는 마산 형무소터, 울산 태화강 동굴피아, 가창댐 등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라신협 제주여상 금융체험 프로그램



한라신협(이사장 김명옥)은 지난달 27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장 견학, 실무자와 상담 등 금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방언학자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강연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가 개소 세 돌을 맞아 방언학자인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사진) 초청 강연을 갖는다. 8월 5일 오후 4시 한라도서관 지하 1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는 강연회에서 소강춘 원장은 '국어의 방언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제주어연구소는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말입니다'를 신조로 2016년 8월 5일 문을 열어 제주어 교육과 연구,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어연구소는 이날 이사회와 임시 총회도 열어 연구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의 064) 722-2203.

제주시 상반기 우수공무원 2명 선정



백영호



채경원

제주시 백영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장과 채경원 교통행정과 토지이용팀장이 상반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2019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12개 부서 1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활동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정됐다.

동정

돈내코 원앙축제 개막식 참석



◇강충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3일 돈내코계곡 및 광장에서 열리는 '제6회 돈내코계곡 원앙축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

'문화가 흐르는 밤' 참석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는 3일 시민북지타운광장에서 개최되는 '문화가 흐르는 밤'에 참석할 예정.

폭염 및 가뭄 대비 활동 철저 당부



◇강성규 대륜동장 지난 30일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회의를 열고 폭염과 가뭄 대비 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서귀포시 '희망 서귀포' 제 48호 폐쇄



서귀포시가 개간지 '희망 서귀포' 제48호를 폐쇄했다. 이번 호에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서귀포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소식과 여행정보들을 담아내 여름 문화·여행 안내서로도 안정맞춤이다.

문화 코너에서는 최근 문화여행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서귀포 북 로드'에 대한 연재를 시작, 서귀포 동부지역의 공공도서관과 독립서점, 작은책방 등을 소개했다. 또 지역에 문화예술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주문화중개소 '시·작'의 지난 성과를 실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2019 제주국제관악제를 비롯해 주요 공연과 전시 일정도 상세하게 담았다.

여행 코너에서는 용암길을 따라 걷는 '마히니숲길'과 오름, 동네 물놀이 명소, 가볼만한 곳과 축제, 여행 정보 등을 수록했다.

서귀포오석학교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



서귀포오석학교(교장 양봉관)는 지난달 27일 학교 강당에서 자원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지정되면서 이뤄졌다.

2억원 보증보험가입
양국정부 인가조건

올포함! NO팁+NO옵션

베트남전세기

다낭 / 호이안 / 후에

1,299,000원 → 1,199,000원

개천절 연휴 10/2(수) ~ 10/6(일)

3박5일
제주출발22:00
제주도착09:00

전세기특전

- ① 5성호텔
- ② 옵션(\$270)포함
- ③ 특식6회

니하오여행사 722-6638

■ 포함사항 : 항공료,호텔,차량,식사,입장료,가이드,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매니터,개인비용,VAT

조아투어 742-1980